

'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 착공식

광주기상청 추진 국가 직접시행 사업...2023년 말 개관 예정 342억원 투입...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기폭제로 기대



30일 오전, 여수세계박람회장 내 부지에서 '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 착공식이 열렸다. 이날 착공식에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권오봉 여수시장, 김금란 광주지방기상청장, 여수시의회 전창곤 의장과 정현주 환경복지위원장 등 50여 명의 내빈이 참석했다. '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은 광주지방기상청에서 추진하는 국가 직접시행 사업으로 총 사업비 342억여 원을 투입해 연면적 5,376㎡,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지어진다.

2015년부터 과학관 유지를 추진해온 여수시는 건립부지 매입비용으로 72억 원을 제공하고, 2020년 기상청과 '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첫 삽을 뜬 '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은 2023년 말 개관 예정으로 전시공간과 체험공간으로 구성된다.

전시공간은 대표전시물, 상설전시관, 360도 특수영상관, 미래기술체험관, 예보체험과학교육실, 기획전시실로 이뤄진다. 체험공간은 날씨 놀이터, 바다날씨탐험관, 해양기상관측관, 기후체험관, 여수앞바다를 생동감 있게 느낄 수 있는 미디어아트 등 5가지 주제로 꾸며지게 된다. 시 관계자는 "국립해양기상과학관 건립은 여수시가 기후변화 대응 선도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생각한다. 2023년 말 개관을 목표로 행정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은 해양기상을 테마로 하는 전국 최초의 전문과학시설로서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는 교육의 장으로도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또한 작년 9월 개원한 여수시청소년해양교육원과 함께 여수박람회장 사후활용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여수=오상호 기자



광양경제청, 상반기 홍보정책자문위원회 개최

홍보정책 추진상황 공유 및 홍보방안 토론 기회 가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송상락, 이하 광양경제청)은 29일 GFEZ 인지도 제고 및 홍보방안 발굴을 위한 2022년 상반기 홍보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광양경제청의 2021년도 홍보 추진상황과 2022년 추진계획을 정취하고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GFEZ의 홍보방안발굴 등을 위하여 마련되었다.

자문위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온라인 및 SNS 홍보, 웹진·웹툰 활용, 국내 언론매체와 다중이용시설 홍보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관심과 이미지 제고 등 홍보에 나쁜 성과

를 거두었다고 보였다.

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 홍보전광판을 활용하여 GFEZ 홍보를 하는 등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광양경제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투자유치를 위해 다양한 홍보방안을 발굴하여 시의적절하게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지역주민과의 공감과 소통을 통해 상생 협력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며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홍보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순천국유림관리소, 조림사업 본격 추진

100.6ha에 편백나무 등 7종의 수종 묘목 253천그루 식재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산림을 가지 있고, 경제적으로 육성하면서 산림자원의 선순환 구조 확립을 통해 산림의 탄소 흡수력을 극대화하고자 '2022년 봄철 나무심기사업'을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금년도 나무심기 사업은 관내 4개 시·군

(순천·보성·화순·고흥)에 총 100.6ha(축구장 약 140개 규모의 면적)의 산림에 대해 편백나무 등 6개 수종으로 총 25만 3000 그루의 나무를 심어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양질의 목재생산을 위한 경제림조성(68.8ha), 산림재

해방지 등의 공익증진을 위한 큰나무조림(17.5ha),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밀원수조림(2.3ha)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림사업(12ha) 등의 나무심기사업을 추진한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2050 탄소중립 기반조성 및 안정적인 국산 목재 공급 체계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나무심기사업과 단계별 적정사업을 추진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쾌적한 산림경관 및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광양시, 도시공원 생태숲 체험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가 즐기고 배우며 숲의 소중함 되새기는 기회 제공

광양시는 오는 4월부터 도시공원 생태숲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생태숲 프로그램은 학생이나 어린이가 자연에서 마음껏 뛰놀며 보고 만지는 과정을 통해 오감 발달과 전인적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설계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마동저수지공원, 마동 자연마당, 가야산, 와우생태호수공원 등 4개소에서 '숲의 소중함 되새기기'라는 주제로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봄이 왔어요, 광합성 놀이, 흙 속

에서 지렁이 일상, 단풍이 드는 이유, 열매 멀리 보내기 등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숲의 특성에 맞춰 진행될 예정이며, 참여자 연령을 고려해 신체와 정신 발달에 도움을 주는 체험들로 구성됐다.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광양시공원과(☎061-797-3727)로 예약하면 되며, 광양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김재원 공원과장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



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실의 체험활동에 제약이 많았던 아이들을 위해 활동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며, "이웃 만족도를 높이고 다양한 숲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심종섭 기자

고흥분청문화박물관, 6월 19일까지

기증 근대문화유산 특별 기획전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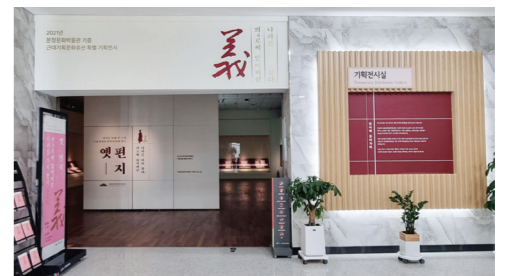
고흥군 분청문화박물관은 <옛편지, 의(義)로써 잃어버린 나라를 다시 찾다> 특별기획전을 3월 29일에 개막하였다.

이번 전시는 기증받은 고문서(간찰) 50여점이 전시되었으며 오는 6월 19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진행된다.

지난해 고흥분청문화박물관은 군민들로부터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작성된 간찰 400여점을 기증받았으며, 기증받은 간찰은 삼호재 송주헌 후손가에서 보관해오던 자료로 삼호재 송주헌 선생이 가족들이나 문인들과 주고받은 편지들이다.

간찰은 전·근대 시대의 편지로, 시대상 뿐만 아니라 개인의 필체, 교육 관계, 심리 변화 등까지 보다 자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자료로서 일정하게 수집된 특정 인물의 간찰은 그 학술적 가치가 더할 나위 없이 크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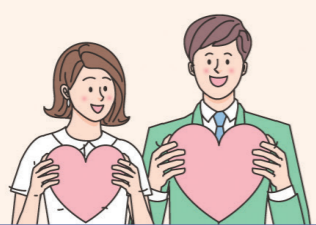
송주헌 선생은 고흥 출신이면서 연재학파의 대표적인 문인으로 "의리지학(義理之學)"



을 삶의 이정표로 하여 항일운동을 주도한 유림의 대표이며, 1919년 1월(음력) 고흥 황제가 승하하자 파리장서운동과 순종복위운동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이 때문에 일본 헌병에게 체포되어 8개월간 옥고를 치렀는데, 다른 유림들이 함께 송주헌 선생이 일제에 항거한 역사가 간찰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군 관계자는 "송주헌 선생의 기증 고문서를 통해 일제에 항거한 역사와 자주독립 그리고 가족에 대한 애뜻한 그리움까지 읽을 수 있는 소중한 자료"라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누가 받나요?



방임, 유기, 학대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정폭력, 성폭력



수도, 가스 등의 공급 중단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수용, 실직, 휴·폐업



화재, 경매, 강제퇴거, 주거지 상실

무엇을 받나요?

- 생계지원 : 월 126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6회
- 주거지원 : 월 64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12회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지원(퇴원전 신청)
- 기타지원 :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 맞춤형(생계) 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지원(일부)만 가능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광산구 복지정책과 062-960-8398, 8405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가까운 주소지의 동행복지센터에서 상담·신청 가능합니다 ”

선지원 후조사 (소득·재산 확인)

사후조사 결과 기준초과시 지원금 환수 조치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65만원(4인 가구)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일반재산 1억 8,8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동행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추진 중입니다. 홀로 어렵게 사시는 분 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주소지 동행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 바랍니다.